



“올해 꼭 조연상 받고 싶어요”

인교진, 최근 종영한 ‘저글러스’서 코믹한 밍상연기로 눈길
SBS TV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 아내 소이현과 출연 “든든한 응원군”

“백희가 돌아왔다”의 흥두식부터 ‘저글러스’의 조 전무까지... 배우 인교진(38·사진)은 최근 연달아 코믹한 역할을 맡아 맛깔스러운 연기를 보여줬다. 인교진은 KBS 2TV 월화극 ‘저글러스’ 종영 후 가진 인터뷰에서 “주변에서 이런 캐릭터 터만 하지 말고 다른 것들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걱정하지만 전 코믹한 밍상 연기를 할 때 가장 즐겁다”고 말했다.

“제가 워낙 될 수가 없어요. 연기할 때도 대부분으로 미리 아는 내용을 빨리 시청자에게 알려주고 싶어 일이 근질근질하거든요. (웃음) 그런 성격이 연기에 묻어나니까 악역이라도 미워 보이지 않는 게 아닐까요?”

2000년 MBC 29기 공채 탤런트로 일찌감치 데뷔한 인교진이지만 이러한 적성(?)을 찾은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단역부터 시작해 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었어요. 스케줄 맞으면 무조건 한 거죠. 그런데 제작년에 ‘백희가 돌아왔다’가 전환점이 됐어요. 제 역할을 찾아가게 된 거죠. 이후로는 사람들이 잘 보면 무조건 웃어요. 전 그게 싫지 않아요.”

자기 자리를 찾는 덕인지 그는 요새 현장에서 날아다니는 듯했다. 인교진은 “주어진 대사 안에서 표정과 몸짓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한다”며 ‘저글러스’ 시청자들에게 사랑받은 ‘카프, 카프!’(컷, 컷), “드루와, 드루와” 같은 대사들도 그런 고민의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4년 배우 소이현과 결혼해 두 딸을 뒀다. 부부는 SBS TV 예능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에도 출연한다.

“기존에 아내와 즐겨보던 프로그램이었어요. 마침 제안이 와서 ‘오케이’ 했죠. 저, 집에서 정말 아내를 웃겨주는 남자거든요. 만날 보는 얼굴인데도 웃을 정도니까, ‘나의 이 매력을 시청자들에게도 보여줘야겠다’ 다짐했죠. (웃음)”

두 사람은 같은 배우로서 서로의 든든한 응원군이라고 한다.

인교진은 “제가 코믹 악역으로 호평받기 시작할 때 아내가 ‘오빠는 원래 관능은 사람인데 그동안 본 모습을 100% 못 보여줬던 것’이라고 격려해주더라. 감동했다”며 “우리는 서로 무조건 ‘최고’라고 해주는 부부”라고 자랑했다. 그러면서 “아내는 조금 부담스러워 할지도 모르겠지만 전 언젠가 한 드라마에 같이 출연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신년 목표를 일찌감치 ‘수상’으로 잡았다.

“연말 시상식에서 ‘조연상’을 꼭 받고 싶어요. 두 번 미끄러졌는데, 올해는 꼭 타서 수상소감도 해보고 싶어요. (웃음) 그래서 지금이 제 전성기냐고요? 아유, 아직 많이 남았죠. 저 ‘육랑남’이에요. (웃음)”



▲‘저글러스’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

‘효리네 민박’ 시즌2 출발 순조

첫회 8% 돌파 ... 윤아 합류

이효리의 스타성은 새해에도 계속된다. JTBC ‘효리네 민박’ 시즌2가 4일 시청률 8.016%(남스코리아 유료플랫폼)로 출발했다. 단숨에 5%를 넘기며 동시간 종편·케이블 채널 1위를 기록한 것은 물론이고, 시즌1의 마지막회 시청률(8.08%)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효리네 민박’은 톱스타 이효리가 남편 이상순과 사는 제주도 집에 민박을 치면서 벌어지는 일을 카메라에 담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이효리는 시즌1 이후 관광객이 너무 많이 몰려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지만 결국 시즌2 제작에 응했다.

시즌1에서는 제주의 봄과 여름을 담은 데 이어 시즌2에서는 눈 덮인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할 수 있다. 방송에 앞서 ‘효리네 민박2’에는 21만 건이 넘는 신청서가 도착했으며, 이효리는 두 번째 민박을 치기 위해 손님들을 위해 벽난로, 노천탕, 계

를 준비했다. ‘효리네 민박’은 2017년 6월 5.842%로 출발한 ‘효리네 민박’은 9회에서 9.995%까지 시청률이 치솟았다. 역대 JTBC 예능 프로그램 최고 성적이다.

시즌1에서는 아이유, 시즌2에서는 윤아가 각각 ‘일꾼’으로 합류해 이효리 부부와 호흡을 맞췄다. ‘효리네 민박’이 방송된 밤 9~10시대 시청률 1위는 일요일 밤 최강자 SBS TV ‘미운우리새끼’가 굳건히 지켰다. 13.7%~19.1%. KBS 2TV ‘개그콘서트’는 6.6%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를 준비했다.

2017년 6월 5.842%로 출발한 ‘효리네 민박’은 9회에서 9.995%까지 시청률이 치솟았다. 역대 JTBC 예능 프로그램 최고 성적이다.

시즌1에서는 아이유, 시즌2에서는 윤아가 각각 ‘일꾼’으로 합류해 이효리 부부와 호흡을 맞췄다.

‘효리네 민박’이 방송된 밤 9~10시대 시청률 1위는 일요일 밤 최강자 SBS TV ‘미운우리새끼’가 굳건히 지켰다. 13.7%~19.1%. KBS 2TV ‘개그콘서트’는 6.6%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김명민 KBS 2TV ‘우리가 만난 기적’ 주연

‘도봉산’ 백미경 작가와 호흡

배우 김명민(사진)이 지난해 안방극장을 강타한 백미경 작가와 손잡았다.

김명민이 KBS 2TV 월화극 ‘우리가 만난 기적’의 주인공을 맡는다고 홍보사 와이프 리컴퍼니가 5일 밝혔다. 그의 드라마 출연은 SBS TV ‘육룡이 나르샤’ 이후 2년 만이다.

‘우리가 만난 기적’은 지난해 ‘힘센여자 도봉산’과 ‘뽕위있는 그녀’를 히트시킨 백미경 작가의 신작으로 방송가의 관심을 모은다.

평범한 가정이 이름과 나이만 다를 뿐, 정반대의 삶을 살아온 남자의 인생을 대신 살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다. 주인공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주변을 따뜻하게 변화시키는 과정을 담은 휴머니즘 드라마다.

김명민은 출세기도를 달리는 최연소 은행 지점장 송현철 역을 맡았다. 성공지향적인 기회주의자로 가정에는 소홀해 아내와



아이들에게는 외면하는 가장이 다. 드라마는 거침없이 상승하던 송현철의 인생에 급제동이 걸리면 서 시작된다.

김명민 외에 김현주, 라미란 등 여배우들도 합류했다.

김현주는 송현철의 아내 선혜진을 연기한다. 청순한 외모와 달리 가슴에는 열망을 품고 사는 여자로, 가정을 등한시하는 남편 때문에 외로워하며 인생의 돌파구를 찾는 인물이다.

라미란은 낙하산 없이도 가족과 화목하게 사는 중독집 안사장 조연화를 맡았다.

밀밭부터 시작한 살림이 빛을 보려는 잘나 사교로 남편을 잃어 생활 전선에 뛰어들게 된다. 편성은 미정.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5 걸어서 세계 속으로 (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역류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0 좌충우돌 만국유람기 스페셜	25 닥터 365 30 해피 시스터즈
9	30 KBS 뉴스	00 꽃피어라 달순아 40 여유 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다시 만나는 하얀거탑 UHD(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생로병사의 비밀 (재) 50 UHD 한식의 마음	00 라디오 로맨스 (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40 와이드 코리아 플러스	05 생생정보 스페셜	00 12 MBC 뉴스 20 TV속의 TV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독록 보합설계 (재)
1	00 KBS네트워크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재) 50 감성애니 하루 2 스페셜 (재)	00 1대 100 (재)	20 헬로키키 신비한 자연교실	55 닥터 365
2	00 중계방송 국회 대정부 질문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 (재)	15 프리파라 3 45 헬로키키 놀라운 자연 이야기 2	00 뉴스브리핑
3		00 자동충북방송 위기 2 30 TV 유치원	15 경제매거진 M 스페셜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05 PD수첩 (재)	00 고향전문록 스페셜
5	00 KBS 뉴스 5 10 남도 지오그래피 30 2018 평창동계올림픽 특집 생방송 평창	00 영상앨범 산 (재) 30 제보자들(재)	00 5 MBC 뉴스 15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30 전생에 웬수들 (재)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남	00 영재발굴단
7	00 KBS 뉴스 7 35 평창동계올림픽 특집 다큐 가래이스키, 데니스 텐의 올림픽	50 내 남자의 비밀	15 전생에 웬수들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골지락
8	25 미워도 사랑해	30 글로벌24 55 1대 100 (재)	55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 9 40 평창동계올림픽 특집 진격의 평창, 동계올림픽에 빠지다			
10	30 쉼터 35 KBS 뉴스라인	00 라디오 로맨스	00 다시 만나는 하얀거탑 UHD	00 리턴 몰아보기 1~2부
11	05 세계건강기행 25 해외일찍드라마 클락슨	10 철부지 브로망스 -절찬상영중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부
12	15 특집다큐 스포츠로 하나되는 코리아	35 유희열의 스케치북	05 도올스톡 25 발칙한 동거 반방 있음 스페셜	30 나이트 라인

EBS 1			
05:00 왕초보 영어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5:15 꼬마기사 마이크	19:50 극한직업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09:40 정수의 비밀(재)	15:30 오도트, 이상한 아이들	(가시숙 황금 필레상황버섯과
(미 서부 트레일 모뉴먼트밸리, 브라이스캐니언,자이언캐니언)	10:30 한국기행(재)	15:45 부릉부릉! 브루미즈	말동생(재)
06:0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6:00 얼마 깨투리	20:40 아이 오픈서(Eye-opener)
(시래기 공조림과 꼬막비빔밥)	11:20 세계테마기행(재)	16:15 두다다콩	20:50 세계테마기행
06: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6:30 방귀대장 뽕뽕(재)	(알프스에 살다 오스트리아)
07:00 강철소년대 파이아로보	12:00 EBS 정오 뉴스	16:45 당동당 유치원1~2(재)	21:30 한국기행
07:30 로이와 함께 하는 소망안전 이야기	12:10 미스터리 휴먼 다큐	17:15 로이와 함께 하는 소망안전 이야기	21:50 EBS 다큐프라임
07:45 출동! 슈퍼왕스	12:40 세상의 모든 범죄(재)	17:30 강철소년대 파이아로보	(한국사 오천년, 생존의 길
08:00 당동당 유치원1~2	12:45 메디컬 다큐-7요일	17:45 호기심 소녀 도트	- 고층, 열정의 빛에 빠지다)
08:30 플라워링 하트	13:40 성년 홀고기(재)	18:00 생방송 특독! 보리나니1~4	22:45 글로벌 아홉 닥터 삼만리
08:45 방귀대장 뽕뽕이	14:30 정글에서 살아남기	19:00 몬카트	23:35 메디컬 다큐 - 7요일
09:00 몬카트	- 화산섬의 비밀	19:15 정글에서 살아남기	24:25 세상의 모든 범죄
09:15 스피 루비	15:00 우주탐방기 갯	19:30 EBS뉴스	24:30 한국영화특선 <김소룡>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6일(음 12월 21일 己巳)	
子	48년생 망설이면서 저울질하고 있을 시간적 여유 없다. 60년생 속명임을 알고 의연히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2년생 대략적인 가늠을 하는 관세이니 어렵거나 처리해도 된다. 84년생 오늘 추진했을 때 효율성이 가장 크겠다. 행운의 숫자 : 27, 01	午	42년생 실속에 신경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54년생 미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하여 시간을 빼앗긴다. 66년생 새로운 차원이야. 78년생 자칫 소홀하기 쉬운 일이 있으니라. 90년생 가지치기를 잘 해야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78, 71
丑	49년생 사소한 것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야만 완벽해질 것이다. 61년생 다른 곳 다쳐도 말고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자. 73년생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법이다. 85년생 상대의 내심을 읽을 수 있어야겠다. 행운의 숫자 : 94, 03	未	43년생 목적이 분명해야 명쾌한 결과를 도모할 수 있다. 55년생 관계가 회복된 후 행할 일이다. 67년생 희망의 빛이 비추어온다. 79년생 북쪽적이고 다중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91년생 겉치다보면 중대한 것을 망각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69, 59
寅	50년생 마무리까지 잘 한 후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62년생 관이한 사정의 변화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74년생 최선을 다 했을지 돌아켜 볼 일이다. 86년생 맹점만 보완한다면 이전보다 훨씬 나은 국면이다. 행운의 숫자 : 06, 57	申	44년생 결가지는 과감하게 쳐버리고 중요한 몸통을 끌어안아 보자. 56년생 가서 보면 자연히 알게 될 것이니라. 68년생 잘 모른다면 나서지 말고 잠자코 있는 편이 낫다. 80년생 열린 시각으로 살펴야 제대로 볼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82, 58
卯	51년생 희구하여 왔던 바를 성취하게 된다. 63년생 지속적이면 서도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5년생 단호하게 결단을 내린다면 후회하지 않으리라. 87년생 두서없는 변수로 인해서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90, 94	酉	45년생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기만없이 발언해도 되는 마당이다. 57년생 색상이 찬 서리를 만나는 이치이니라. 69년생 꼭 이 유를 따져 보아야 한다. 81년생 하나의 이권 아래에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모여들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6, 52
辰	52년생 기갑 없이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행하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 64년생 한강에 돌 던지는 격이니 별다른 의미가 없다. 76년생 실력부터 키우고 볼 일이다. 88년생 시종일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절대로 무리하지 말자. 행운의 숫자 : 63, 46	戌	46년생 평상시에 잘 갖추고 있었다면 그에 따른 덕을 보게 되리라. 58년생 철자를 거치는 과정에서 가다가 잡히리라. 70년생 입장에 따라서 관점을 달리할 수 있다. 82년생 주관적인 판단에 치우친다면 손실이 크다. 행운의 숫자 : 32, 32
巳	53년생 치열한 노력이 수반되어야만 기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65년생 하찮게 여겨왔던 것 속에서 기회의 열쇠가 있다. 77년생 확연한 차이가 있을 것이니 눈여겨보아라. 89년생 막연하던 어떤 무의미가 없느니라. 행운의 숫자 : 25, 93	亥	47년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있는 것이 용이하다. 59년생 차별화시키지 않는다면 과격적인 진전을 도모하기 힘들 것이다. 71년생 일시적으로 막혔다가 급히 터질 수도 있다. 83년생 사정을 고려한 다음에 결정하자. 행운의 숫자 : 31, 15